

◀기쁜 우리 날들▶ 서문시장 돼지고기 선술집 배 창 환
(Father's Day에 생각하는 아버지)



고등학교 다닐 때였지
노가다 도목수 아버지 따라
서문시장 3지구 부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할매술집에 갔지
담벼락에 광목을 치고 나무 의자 몇 개 놓은 선술집
바로 그곳이었지
노가다들이 떼거리로 와서 한잔 걸치고 가는 곳
대광주리 삼은 돼지다리에선 하얀 김이 설설 피어올랐고

나는 아버지가 시켜주신 비겟살 달콤한 돼지고기를 씹었지
벌건 국물에 고기 띄운 국밥이 아닌
살코기가 수북이 한 접시를(!)

깍깍 목이 맥히지도 않고
아버지가 단번에 꿀떡꿀떡 넘기시던 막걸리처럼
맥히지도 않고, 이게 웬 떡이냐 잘도 씹었지
배속에서도 퍼뜩 넘기라고 목구멍으로 손가락이 넘어왔었지

식구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어서
공부하는 농이라도 실컷 먹인다고
누이 형제들 다 놔두고 나 혼자만 살짝 불러 먹이셨지
얼른 얼른 식기 전에 많이 묵어라시며
나는 많이 묵었으니까 니나 묵어라시며

스물여섯에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남몰래 울음 삼켰지
돼지고기 한 접시 놓고 허겁지겁 먹어대던 그날
난생 처음 아버지와 그의 비밀 잔치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일이 떠올랐는지 몰라도
지금도 서문시장 지나기만 하면 그 때 그 선술집에 가서
아버지와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어 눈물이 나지
그래서 요즘도 돼지고기 한 접시 시켜놓고 울고 싶어지지.



◀그뻘 그랬지 ▶ 라나 에 로스포
‘개구리와 두꺼비’란 뜻의 이탈리아어라는 ‘라나 에 로스포’는 “사~랑해 당신을~ 저~영 말로 사랑해”라는 노래를 우리에게 깊이 남겨 놓았습니다. 은희, 최안순등 유명한 가수들은 라나 에 로스포의 멤버였습니다.
노래중 “예~~~~~”로 이어지는 후렴은 웬만한 가사보다 더 호소력있는 사랑의 멘트였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코드 노래이어서 누구나 쉽게 기타를 치며 불렀던 노래였던 ‘사랑해,는 웬지 친근한 느낌의 이름’ 라나 에 로스포’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9월 2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1. 시인은 혼을 넣어 시를 짓는다. 혼을 넣어 기도하라.
2. 신혼부부는 날 새는 줄 모른다. 신혼부부처럼 기도하라.
3. 꽃과 함께 있으면 향기가 묻어난다. 꽃집 아가씨처럼 기도하라.
4.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5.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만을 들어준다. 사람노릇을 먼저하고 기도
6. 기도는 웅변대회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라.
7.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라. 떡줄 사람 입장이 되어 하라.
8.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지 말라. ‘혹시나’가 ‘역시나’ 된다.
9. 그 분이 다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내가 먼저 다가가라.
10. 밥 먹고 기도하라. 허기지면 제 정신이 아니다.
11. 간단명료하게 기도하라.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12. 불조심보다 말조심이 먼저다. 함부로 말하려면 기도하지 말라.
13. 불평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불평분자의 기도는 불난데 부채질이
14.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교만한 자의 기도는 전달되지 않는다.
15.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만 사용한다. 그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라.
16. 이왕이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뤄진다.
17. 기도는 마라톤이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18. 기도는 영혼의 식량이다. 영양 실조되기 전에 기도하라.
19. 걷는 것만큼 앞으로 간다. 걸어가듯 기도하라.
20. 입으로만 하는 것은 소음공해다. 몸으로도 기도하라.
21.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라. 1%의 오염된 생각이 공든 탑을 망가뜨린다.
22.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라. 마음 문이 닫히면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23. 가정이 화합한 다음 기도하라. 불화 속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24. 모두 함께 기도하라. “대~한민국”의 함성을 생각해 보라.
25.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다. 파트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
26. 성전에 꽃을 꽃지말라. 나 스스로 웃음 꽃이 되어 기도하라
27. 생활을 기도처럼 하라.

◀말씀따라 행하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동정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배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11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3(시편 15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474장	다 같이
기 도 Pray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8:1-11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서로 할 말이 없던 두 사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87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34 총액: \$ 381,643.7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주 차	안 내
2	노은숙		<현관> 김순자 노은숙
9	이광희	*최현철서재오	<성전입구> 임혜자
16	이규임	항존직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3	이금선		
30	이재영		

◆9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2		정기구역예배(7)
9		성가대 헌신예배(12)
16		
23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9월에는 겨울의 끝자락이 보여 봄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간간이 뿌려지는 비는 터트린 꽃들에게 주는 양식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봄같은 따스한 마음과 비 같은 성령으로 신앙과 인격이 더 자라는 달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 정기구역예배 <일시> 7일(금) 저녁 7:30분
*인도자, 구역장 모임 <일시> 7일(금) 새벽기도회 후
- "Evening Alpha" <일시> 8월28일(화)부터 매주 저녁 7:30분. 교회사무실
*<대상> 항존직 Alpha, Morning Alpha 미참자 & 신입 Alpha 교우
*<문의> 박병민 집사
- 정기당회 <일시> 9월 5일(수) 저녁 6시 Dress Room
-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확대회의(예고)
*알찬 바자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확대회의를 갖습니다.
<일시> 다음주일(9일) 예배 후 회의실
<대상> 구역장. 선교회장. 청년회장. 실무진행팀
- 교회비품재물조사 <문의> 박상욱 집사
*교회비품을 소지하고 계신 성도께서는 비품티켓을 가져다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5:50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서는 걸음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다리는 나만이 느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착한 시인들▶ 나팔꽃

하늘로 하늘로
오르고픈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새끼줄을 타고 넘던
순박한 나팔꽃은 이제 없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언제부터인가
새끼를 꼬지 않았으며
벗짚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언제부터인가
새끼를 꼬지 않았으며
벗짚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이면 아내와 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가장이 된 몸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늘 불안스러운 아들이었다 봅니다. 반나절 머무는 동안 간섭에 가까운 애정표현은 귀찮기까지 하였습니다. 집에 올 때면 운전 조심하라며 후진하는 차 뒤에서 요란스럽게 교통정리까지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간신히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에 툼밀러를 통해 손 흔드시는 아버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돌보아 드려야 할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오랫동안.....